

노인일자리 사업과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웰에이징 전문가를 중심으로

염주희¹, 김두리², 김광환³, 장경희^{1*}

¹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²건양대학교 간호대학, ³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 Study on Perceptions of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Well-Aging Educators' Perspectives

JooHee Yum¹, Doo-Ree Kim², Kwang-Hwan Kim³, Kyung-Hee Chang^{1*}

¹WellDying Convergence Lab, Konyang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웰에이징 교육전문가가 노인일자리 사업 및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2023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웰에이징 교육전문가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4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교육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5를 이용,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만-위드니 U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생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교육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살펴보기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9.7세였고, 현재 종사하는 분야에 재직할 평균 기간은 10.3년이었다. 이들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교수학습 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68.9%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이어진다고 응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IPA 분석 결과 이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실행도 중에서 행정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하기에서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는 비사회복지계열 전공자보다 행정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하기에서 실행도 점수가 높았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필수 교육에 웰에이징 교육을 융합하는 방안과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를 중심으로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olicy awareness among well-aging educators who are interested i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October 31, 2022, through January 16, 2023, with a total of 45 well-aging educators included in the study. Using SPSS Statistics 25,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d Mann-Whitney U-tests were conducted. Two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models were performed to study levels of perception on such policy awareness. On average, subjects were 49.7 years old, and the average length of service in their current field was 10.3 years.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68.9%) evaluated policy effectiveness highly, recognizing that education leads to participation in senior job placement programs. Results show that well-aging educators had difficulties in working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nduct education. In addition, social-work professionals had higher performance scores than non-social work professionals when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This study suggests well-aging education can be integrated into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social-work professionals can be an integral part of it.

Keywords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uccessful Aging, Gerontology, Education Needs, Senior Employment Program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Chang(Konyang Univ.)

email: 386hee@hanmail.net

Received March 2, 2023

Revised April 6, 2023

Accepted April 7,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1. 서론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한국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이 비율이 20.6%로 늘어나,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년으로,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같은 변화를 겪는 데 50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이다[1]. 이처럼 한국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 웰에이징 연구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웰에이징(Well-aging)은 노화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활동적인 생활을 하며, 존엄성을 잃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한다[2]. 이때 고령자가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웰에이징의 중요한 요소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응답자 중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41.5%였다.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준비 능력 없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4.6%로 조사되어 많은 이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한편 한국 노인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인 유효 은퇴 연령과 생애 주 직업에서 은퇴하는 나이인 공식 은퇴 연령을 비교한 결과, 이 둘의 격차는 11.1년이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차이로, 한국 노인은 공식 은퇴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며, 다른 나라의 노인들보다 늦은 나이까지 근로하는 것을 알 수 있다[4].

고령자의 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이들의 근로 의욕과 근로 이유를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2014, 2017,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고 싶은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34.7%, 33.6%, 38.4%로 나타나 근로 욕구가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생계비 마련(73.9%), 건강 유지(8.3%), 용돈 마련(7.9%)을 이유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도 일하고 싶은 고령자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70%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 65~69세의 취업률이 41.5%임을 고려했을 때, 일본 고령자 취업률은 취업 의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경제적 보상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아서[6] 한

국 노인과 유사한 이유로 근로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령자는 경제활동을 통해 웰에이징의 요소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및 고령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8].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소득 보장, 공적·사적 부담 부담 완화이며, 정서적 효과는 가족과 사회 내의 역할 확보, 자존감 향상, 자아 정체감 유지를 들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취업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9]. 사업 참여 기간과 참여 동기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간이 길수록, 여가 활동을 위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일수록 자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 소득, 경력을 들 수 있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나이는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만 60-65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참여자에게는 가점이 있는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선발한다. 사회서비스 유형은 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 역량, 정보검색 능력 등에 배점이 있다[7].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프로그램마다 선발 기준이 다르고,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수행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나뉘어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11].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필수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공공형 참여자의 경우 총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해당 교육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행기관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채용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데[7], 교육 프로그램 총괄 집행도 담당한다.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수행기관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의 편차가 크고 교육 프로그램에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위한 교육은 노년기의 변화, 건강관리 등 웰에이징 관련 내용

을 기초로 하며, 활동비 부정 수급 예방,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 만큼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 개선, 인권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관점과 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2004년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상당수 있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고[13], 참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노년 교육 현장의 실무자인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세부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살펴보았다.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웰에이징 교육 전문가가 노인일자리 사업 및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둘째,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의 교육 관련 인식을 비교하여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교육 제공자로 적절한지 종합적 판단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웰다잉 임상실무, 사회복지, 보건의로, 상담심리학, 인문학 분야 등에 종사하며 웰에이징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사람이나 웰다잉·웰에이징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월16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각당복지재단의 웰에이징 관련 교육 프로그램(죽음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 웰라이프 지도자 과정 등) 이수자와 연구자 주변의 웰에이징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스노우볼 표본 추출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IRB No.: KYU-2022-09-061-001) 연구대상자는 연구 목적과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참여에 동의하였다. 총 634명의 웰에이징 전문가는 공통설문 응답을 마치고, 자신이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동하여 세부 질문에 답하였다. 본 연구는 본인이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선택한 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 강사가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교육자료 수집 경로,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 요소, 교육 효과성 인식 정도, 교육 운영 분야의 중요도와 실행도 문항을 포함하였다.

2.2.1 연구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나이, 최종학력, 전공계열,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형태, 재직 기간을 조사하였다.

2.2.2 교육자료 수집 경로 및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 요소·효과성 인식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들이 어떤 경로로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지 살펴보고자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또한 교육 주체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어떤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조사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진행 시 고려해야 할 교수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와 적절한 교육 방법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과 관련해선 응답자에게 조사한 문항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Variables of Interest

Survey Questionnaires
How did you acquire information o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① Government institution
② Medical institution
③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④ Mass media
⑤ Financial institution
⑥ Acquaintances
⑦ Etc

What do you think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 ① Educational facilities
- ② Training content
- ③ Duration of training and location
- ④ Instructor
- ⑤ Teaching method
- ⑥ Etc

What do you think the most effective method is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 ① On-site lecture
- ② Online class
- ③ Seminar or workshop
- ④ Providing handouts
- ⑤ Etc

Who do you think the most appropriate party is in providing education regard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 ① Government institution
- ② City hall, district office, social welfare agencies
- ③ Medical institution
- ④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 ⑤ Workplace
- ⑥ Etc

How effective do you think training o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is in providing jobs for seniors?

- ① Not effective at all
- ② Somewhat ineffective
- ③ Neutral
- ④ Somewhat effective
- ⑤ Very effective

2.2.3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운영 관련 중요도와 실행도

연구대상자가 노인일자리 교육 운영에 있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중요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었는지(실행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조사한 항목은 프로그램 홍보, 계획수립, 교육 제공·지도·관리,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운영의 4분야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내용의 중요도와 실행도는 목적, 배경 및 의의, 참여 대상, 선발 제외 기준, 참여 방법, 시간 및 보상 등 11개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사업 참가자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공공형(71.9%), 사회서비스형(5.9%), 시장형(5.4%)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한 보건복지부 용어를 일부 변형한 것인데, 시장형이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민간형의 하위 형태인 시장형을 사용하였다.

2.3 분석 방법

조사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특성과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 요소·효과성 인식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교육 운영 관련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IPA 설문을 5점 척도(매우 낮음=①, 낮음=②, 보통=③, 높음=④, 매우 높음=⑤)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후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수식 (1)을 사용, 100점으로 변환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IPA 응답값은 매우 낮음=0점, 낮음=25점, 보통=50점, 높음=75점, 매우 높음=100점이었다.

$$\text{Recoded IPA value} = (\text{변수값} - 1) / (\text{척도 최대값} - 1) * 100 \quad (1)$$

IPA는 서비스나 재화의 만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으로 X, Y 축 평면에 시각적 결과를 제시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중요도와 실행도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영역에 문제점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IPA 결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I 사분면은 중점개선영역으로, 이 영역에 있는 항목은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 II 사분면은 개선영역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사분면은 우위영역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과도하게 자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효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IV 사분면은 경쟁우위영역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미 잘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Data-centered quadrant model을 사용하여 X축에 실행도 평균, Y축에 중요도 평균을 설정하였다. 데이터의 중심 경향을 찾을 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척도로 이루어진 응답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중앙값 대신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14].

연구대상자를 전공계열별로 비교한 모델은 만-위드니 U 검정(Mann-Whitney U)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7].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계열과 비사

회복지계열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관련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할 때, 척도와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모수적 종속변수는 t-검정 대신 만-위드니 U 검정을 사용한다[15].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4.4%, 여성 55.6%이고, 연령층은 20대 15.6%, 30대 8.9%, 40대 26.7%, 50대 13.3%, 60대 이상 35.6%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49.7세였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력은 학사 학위 소지자가 57.7%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17.8%, 24.4%였다. 연구대상자의 전공계열은 사회복지 55.6%, 사회학 13.3%, 의료(간호, 치위생) 11.1%, 기타(경제, 역사, 인문학 등) 20.0%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형태는 의료기관 6.7%, 학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31.1%, 사회복지시설 46.7%, 기타 15.6%로 나타났다. 즉, 웰에이징 교육전문가 중 본인이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분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선택한 연구대상자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55.6%가 사회복지계열 전공자인 것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재직할 기간은 평균 10.3년으로, 3년 미만 20.0%, 3년 이상-5년 미만 11.1%, 5년 이상-10년 미만 37.8%, 10년 이상-20년 미만 11.1%, 20년 이상 20.0%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45)

Categories	n	%
Gender		
Male	20	44.4
Female	25	55.6
Age group		
Mean	49.7 years old	
20-29 years old	7	15.6
30-39 years old	4	8.9
40-49 years old	12	26.7
50-59 years old	6	13.3
60+	16	35.6
Highest level of education		
Bachelor's degree	26	57.7

Master's degree	8	17.8
Doctoral degree	11	24.4
Field of major		
Social work	25	55.6
Sociology	6	13.3
Medical	5	11.1
Others	9	20.0
Types of work place		
Medical institution	3	6.7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14	31.1
Social welfare facilities	21	46.7
Others	7	15.6
How many years(Y) are you employed in current field?		
Mean	10.3 years	
Y<3	9	20.0
3≤Y<5	5	11.1
5≤Y<10	17	37.8
10≤Y<20	5	11.1
Y≥20	9	20.0

3.2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제공 시 필요한 요소 및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

연구대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을 제공할 때 고려할 요소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경로로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정보 습득 경로를 살펴본 결과,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 66.7%, 학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이용 55.6%, 대중매체(TV, 인터넷, 신문) 40.0%, 주변 사람 20.0%, 기타(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11.0%로 나타났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은 없었으며, 평균 1.9개의 경로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활동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 교육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는 53.3%였고, 교육 방법 및 형태라고 응답한 이는 22.2%였다. 이 밖에도 교육시설, 교육 시간 및 장소, 교육 강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는 24.5%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적절한 교육 방식을 조사한 결과 75.6%가 현장강의라고 응답하였고, 회의·세미나 11.1%, 온라인 수업과 교육자료 배부는 각각 6.7%로 나타났다. 어느 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수행처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시청·구청·복지관 등 지역기관이라고 응답한 이가 51.1%로 가장 많았고, 학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37.8%, 기타 11.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제공에 어떠한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68.9%가 해당 교육이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20%는 보통, 11.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다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이 사업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Instructors' Perspectives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N=45)

Categories	n	%
How did you acquire information o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Multiple responses)		
Average number of information sources	1.9	
Government institution	30	66.7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25	55.6
Mass media	18	40.0
Acquaintances	9	20.0
Others	5	11.0
Most important factor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Training content	24	53.3
Teaching method	10	22.2
Duration of training and location	4	8.9
Instructor	4	8.9
Educational facilities	3	6.7
Effective teaching method		
On-site lecture	34	75.6
Seminar or workshop	5	11.1
Online class	3	6.7
Providing handouts	3	6.7
Most appropriate party for providing education		
Local governmental agencies	23	51.1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17	37.8
Others	5	11.1
Level of effectiveness		
Ineffective	5	11.1
Neutral	9	20.0
Effective	18	40.0
Strongly effective	13	28.9

3.3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의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관련 인식 비교

연구대상자를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사회복지계열 응답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는 학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수학습활동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는 양쪽

모두 교육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을 수행에 적절한 기관을 보면, 두 집단 모두 시청·구청·복지관과 같은 지역기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제공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응답자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 사회복지계열 응답자의 76.0%,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의 60.0%가 해당 교육이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사회복지계열 응답자가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보다 노인일자리 교육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두 분야 모두 교육 참여가 실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3.4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중요도 및 실행도

3.4.1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운영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

연구대상자가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운영 시 홍보, 계획수립, 제공·지도·관리,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네 영역의 업무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낮은 편, 보통, 높은 편의 세 가지 응답으로 변환하였다. Fig. 1에는 네 영역의 중요도 응답 값을 표시하였고, Fig. 2에는 실행도 응답값을 가로 막대 누적 그래프로 표시한 후 원칙도와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을 포함하였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IPA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중요도는 71.7점, 실행도는 65.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희망자의 수가 일자리 개수보다 많기에, 연구대상자는 홍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과 관련한 IPA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에 대한 중요도는 72.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실행도는 69.4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Fig. 3의 제3사분면에 볼 수 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계획수립 영역은 현재 과잉투자영역에 해당한다.

Fig. 3에 나타난 교육 프로그램 제공·지도·관리는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아서 경쟁우위영역에 있다. Table 2에서 연구대상자의 나이가 평균 50세이고, 재직 기간이 평균 10년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응답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를 지도하며, 교육 성과를 관리하는 경험이 충분한 이들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교수자와 교육 내용의 변동 없이 교육 대상자가 바뀌는 경우가

Table 4. Cross-tabulation of Social Work Professionals vs Non-Social Work Professionals

(N=45)

Categories	Social Work	Non-Social Work	Total
Count (%)	25(55.6%)	20(44.4%)	45(100%)
How did you acquire information o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Government institution	18(60.0%)	12(40.0%)	30(100.0%)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11(44.0%)	14(56.0%)	25(100.0%)
Mass media	10(55.6%)	8(44.4%)	18(100.0%)
Most important factor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Training content	13(54.2%)	11(45.8%)	24(100.0%)
Teaching method	7(70.0%)	3(30.0%)	10(100.0%)
Others	5(45.5%)	6(54.5%)	11(100.0%)
Appropriate party for providing education			
Local governmental agencies	11(47.8%)	12(52.2%)	23(100.0%)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9(52.9%)	8(47.1%)	17(100.0%)
Others	5(100.0%)	0(0.0%)	5(100.0%)
Level of effectiveness			
Ineffective	1(20.0%)	4(80.0%)	5(100.0%)
Neutral	5(55.6%)	4(44.4%)	9(100.0%)
Effective	9(50.0%)	9(50.0%)	18(100.0%)
Strongly effective	10(76.9%)	3(23.1%)	1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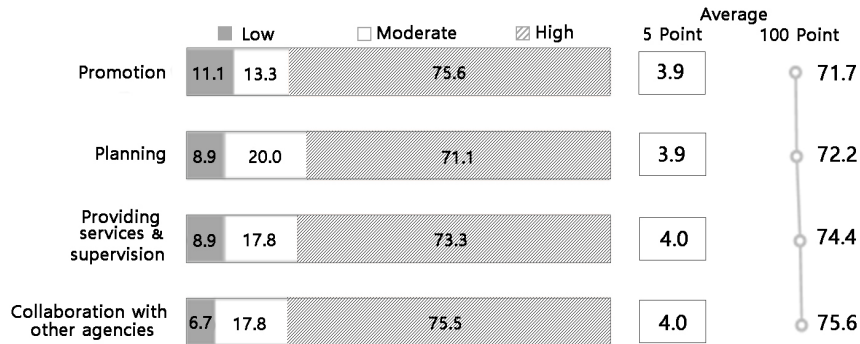


Fig. 1. Perceived Importance of 4 Educational Compon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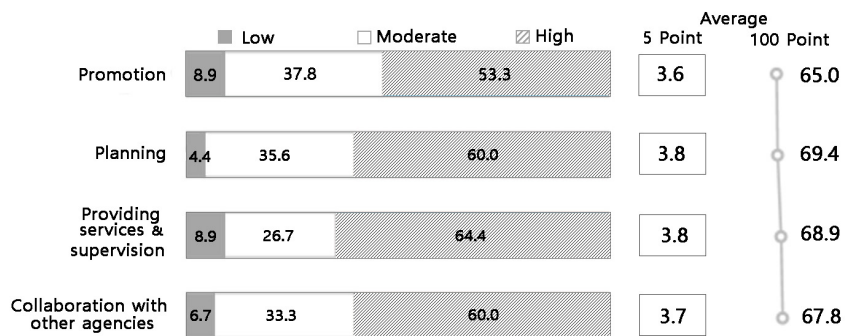


Fig. 2. Perceived Performance of 4 Educational Components

많아서 응답자가 비슷한 자료를 반복 사용하는 것도 해당 영역이 경쟁우위를 갖게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도는 75.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실행도 평균은 67.8점으로 전체 평균과 같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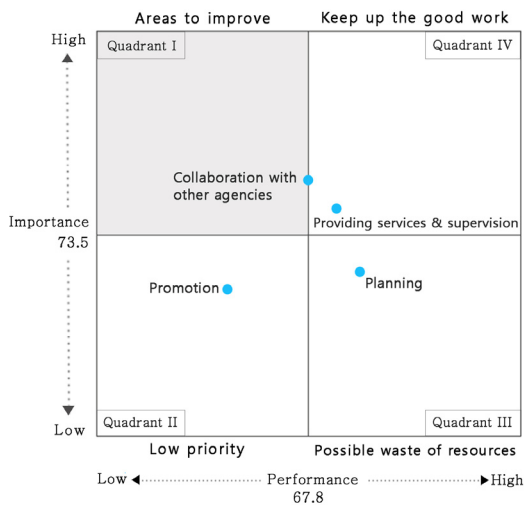


Fig. 3. IPA Model on 4 Educational Components

3.4.2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별 지식중요도와 지식정도

연구대상자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아래의 교육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낮은 편, 보통, 높은 편의 세 가지 응답으로 변환하였다. Fig. 4에는 11가지 영역의 중요도 응답값을 표시하였고, Fig. 5에는 실행도 응답값을 가로 막대 누적 그래프로 표시한 후 원척도와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지식의 중요도를 73.9점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보다 높게 응답하였는데, 같은 영역의 지식정도는 66.1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Fig. 6에 나타난 것처럼 세 가지 사업 구분에 대한 IPA 결과는 중점개선영역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간과 참여자가 받는 보상에 대한 지식의 중요도 질문에 66.7점이라고 응답하였고, 같은 영역의 지식정도는 63.9점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간·보상과 더불어 IPA 그래프 2사분면에 들어있어 개선영역에 해당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른 정의와 사업 참여 방법에 대한 지식의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지식정도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이 두 분야는 우위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투입하는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업 구분에 할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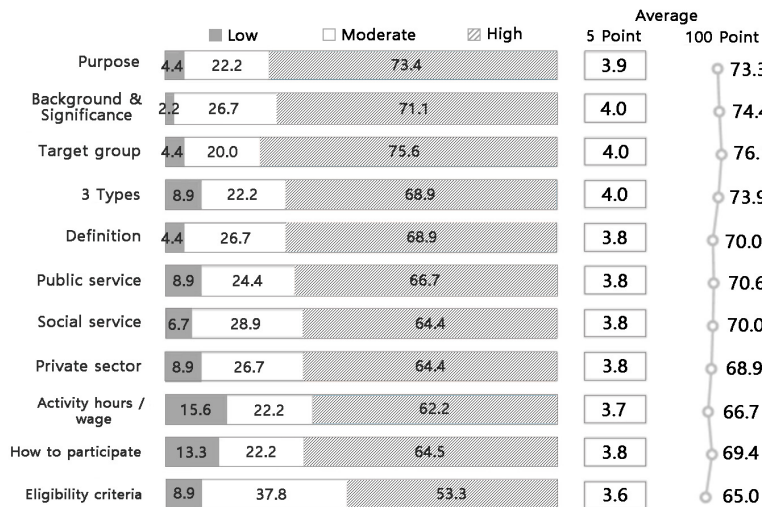


Fig. 4. Perceived Importance of 11 Knowledge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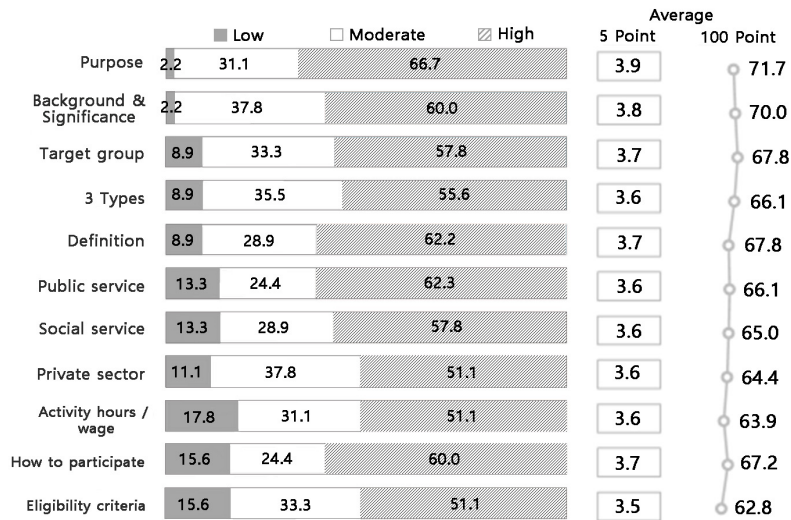


Fig. 5. Perceived Performance of 11 Knowledge Areas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 사업의 배경 및 의의, 사업의 목적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나 지식정도에 대해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Fig. 6의 제4사분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분야는 경쟁우위영역에 있어 잘하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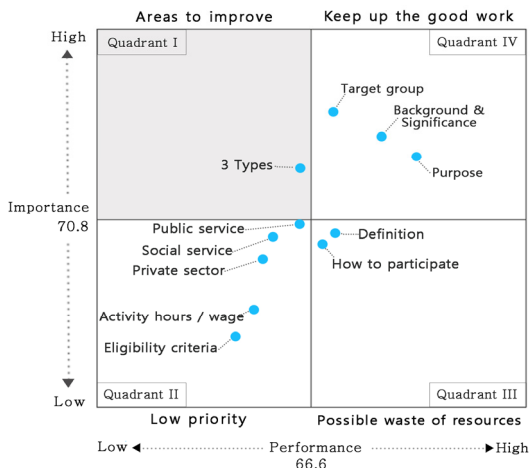


Fig. 6. IPA Model on 11 Knowledge Areas

3.5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비교

3.5.1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의 중요도 인식 차이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가 교육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것처럼 홍보($z = -.174, p = .862$) 계획수립($z = -.435, p = .663$), 제공·지도·관리($z = -.965, p = .334$), 협력체계 구축·운영($z = -.863, p = .388$) 및 네 분야의 평균($z = -.069, p = .945$)을 나타낸 중요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 두 집단의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중요도 평균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5.2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의 실행도 인식 차이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가 교육 실행도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분석을 실시했다. Table 6에서 보듯이 홍보($z = -.109, p = .913$) 계획수립($z = -1.513, p = .130$), 제공·지도·관리($z = -1.481, p = .139$) 및 네 분야 평균 ($z = -1.523, p = .128$)을 나타낸 실행도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실행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z = -2.116, p = .034$).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실행도에서 사회복지계열 응답자의 평균은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보다 7.83점 높았다.

Table 5. Differences in Perceived Importance between Social Work and Non-Social Work Professionals

Grouping variable			N		
	Social work		25		
	Non-social work		20		
		Mean Rank	Mann-Whitney U	Z	Asymp. Sig. (2-tailed)
Promotion	social work	22.72	243.00	-.174	.862
	Non-social work	23.35			
Planning	social work	22.28	232.00	-.435	.663
	Non-social work	23.90			
Providing services & supervision	social work	24.60	210.00	-.965	.334
	Non-social work	21.00			
Collaboration with other agencies	social work	24.42	214.50	-.863	.388
	Non-social work	21.23			
Average importance of 4 areas	social work	23.12	247.00	-.069	.945
	Non-social work	22.85			

Table 6. Differences in Perceived Performance between Social Work and Non-Social Work Professionals

Grouping variable			N		
	Social work		25		
	Non-social work		20		
		Mean Rank	Mann-Whitney U	Z	Asymp. Sig. (2-tailed)
Promotion	social work	23.18	245.50	-.109	.913
	Non-social work	22.78			
Planning	social work	22.50	187.50	-1.513	.130
	Non-social work	19.88			
Providing services & supervision	social work	25.44	189.00	-1.481	.139
	Non-social work	19.95			
Collaboration with other agencies	social work	26.48	163.00	-2.116	.034
	Non-social work	18.65			
Average performance of 4 areas	social work	25.62	184.50	-1.523	.128
	Non-social work	19.73			

4. 논의

본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교육 욕구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기술한다.

첫째, 웰에이징 교육전문가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을 두고 본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자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관련 분야마다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정 분야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행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보다 실행이 앞서서 과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분야별 교육 욕구를 파악한 적은 없지만, 웰에이징 교육 수요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경우는 있었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웰에이징 분야 중 가장 교육 욕구가 높은 항목은 경제력이었다[16]. 즉, 잠재적 웰에이징 교육 수요자는 웰에이징을 위한 중요 요소가 경제력이라고 보는 만큼, 강사는 고령자의 소득 보전 효과가 나타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가 바라보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연결된다고 보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을 웰에이징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선행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노년기 변화, 성공적 노후 이해, 재무,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웰에이징 교육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교육 기획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와 비사회복지종사자간에 해당 정책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계열의 연구대상자 중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의 비중이 높았고,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실행도도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이처럼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가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을 총괄하는 것은 직무 연계성이 높은 바람직한 인적자원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는 고용 불안정, 열악한 처우 등의 고충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18], 이런 상황이 개선되어야만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인력이 계속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 및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자의 다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이어진다고 평가하였으며,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는 비사회복지계열 전공자보다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실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필수 교육에 웰에이징 전문가가 투입되는 방안과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를 중심으로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과 향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웰에이징 교육, 직업적 소양 교육, 근무 중 사고 예방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후자는 정책 미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적절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두 가지 교육 모두 고령자의 소득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고,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와 교육전문가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정보를 수집한다는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경로보다 정부 방침을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교수학습 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 내용을 택했으며, 교육 방식으로는 현장 강의를 선호하였다. 2020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76.6세이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이 71.6세임을 고려하면[19],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방식으로 전통적인 강의 형태 교수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IPA 모델로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한 결과는 자원 배분 전략 수립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운영 영역을 살펴본 Fig. 3에서 과잉투자영역에 있는 항목은 교육 계획수립이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향후 교육 계획수립에 사용하는 노력을 줄이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3에서 개선할 분야는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이 항목의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정책 중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가 특히 복잡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74개, 사회복지관 181개, 대한노인회 203개, 지방자치단체 141개, 시니어클럽 185개 등 약 1,300개에 달한다[7]. 이중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각 시·도에서 총괄을 맡는다. 이후 시·군·구 단위에서 계획수립, 사업비 지급, 선정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수행기관과 협의한다[20].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전달체계에 의해 사업 수행 주체 간에 지도·감독·지원 역할을 구분하는데 혼선을 빚기도 한다[21]. Fig. 6에서는 사업 정의 및 참여 방법 교육이 과잉투자영역에 해당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담당자는 이에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노인일자리 세 가지 사업 구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전공자의 교육 관련 인지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을 제공할 때 어떻게 인력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집단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제공 주체로 시청·구청·복지관 등 지역기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달체계에서 지역기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제공에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연구한 결과, 사회복지계열의 76.0%, 비사회복지계열 60.0%가 해당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복지계열 응답자 가운데 일자리 사업 교육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해당 정책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 전체를 분석한 IPA 모델에 의하면,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왔지만, 사회복지계열의 실행도 점수는 비사회복지계열의 점수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담당자의 다수가 사회복지계열 종사자로 이루어진 현 상황이 적절한 인력 배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필수 교육 시간을 웰에이징 교육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는 지역사회 내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건강한 노년 준비와 노년기의 특성과 같은 내용을 대면 강의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근무자나 관련 교육전문가가 행정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노인인력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 중복을 피하고,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계열 종사자가 현재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 실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 준비·실행하는 데에는 타 분야 전문가와 협력이 필요하다. 웰에이징 교수자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제공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필수 교육에 웰에이징 프로그램을 융합하는 방안과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를 중심으로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령자 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식 조사연구가 수행되어 교수자가 교육 참여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여부에 관한 문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22 Statistics of Older Adults, Statistics Korea,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0896&tag=&nPage=1&ref_bid= (accessed Mar. 17, 2023)

[2] D. R. Kim, K. H. Kang, A. Park, C. H. Lee, K. H. Kim, "An integrative review of well-aging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3, pp.190-19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3.190>

[3] Statistics Korea, 2021 Report on the Social Survey, Statistics Korea,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15115 (accessed Mar. 17, 2023)

[4] KDI Economic Information & Education Center, In Korea, the effective official retirement age gap in OECD member countries is the highest, Nara Economics, Jul. 201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vailable from: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20&cidx=9418&sel_year=2016&sel_month=03&pp=20&pg=1 (accessed Mar. 17, 2023)

[5] S. J. Kim, S. H. Lee, E. H. Namkung, Y. K. Lee, H. Y. Baek, Changes in the lives and perceptions of the elderly in Korea: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260-266, pp.440-454, 2021. DOI: <http://doi.org/10.23060/kihasa.a.2021.23>

[6] Institute of Gerontology, The University of Tokyo, Tokyo University textbook for the Aging society, University of Tokyo Press, pp.121-123, 2017.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peration manual for the 2022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ib/si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70043 (accessed Mar. 17, 2023)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overview of the 2023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12.02.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3945 (accessed Mar. 17, 2023)

[9] Y. C. Kim, S. H. Kim, "A study on the active economic activities by the job program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Industry Promotion Research*, Vol.6, No.1, pp.55-62, 2021. DOI: <https://doi.org/10.21186/IPR.2021.6.1.055>

[10] Y. H. Kwon, S. H. Byun,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in elderly job project upon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3, No.2.1, pp.689-704, 2022. DOI: <https://dx.doi.org/10.22143/HSS21.13.2.49>

[11] H. S. Lee, H. I. Kwon, "A study on the jobs for elderly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using Gilbert & Terrel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2, No.4.1, pp.2087-2098, 2021. DOI: <https://dx.doi.org/10.22143/HSS21.12.4.148>

[12] G. S. Shin, S. S. Kwon, "The impact on the business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5, pp.105-115, 2015.
DOI: <https://doi.org/10.16972/apibve.10.5.201510.105>

- [13] J. H. Seo, S. C. Jung, “A review on the jobs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 for the elderly seen through the eyes of workers”, *Social Welfare Policy*, Vol.49, No.2, pp.5-40, 2022.
DOI: <http://dx.doi.org/10.15855/swp.2022.49.2.5>
- [14] J. A. Martilla,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Jan. 1977, pp.77-79.
DOI: <https://doi.org/10.2307/1250495>
- [15] W. K. Koh, *Social science data analyses with SPSS*, Kyungmoon Publishing Company, pp.213-216, 2011.
- [16] J. H. Ku, H. N. Lim, D. R. Kim, K. H. Kang, S. H. Kim,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by adult life cycle for well-agi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257-269,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257>
- [17] J. B. Jeong, W. K. Lim, “Empirical study on the needs and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program for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1, No.9, pp.335-351, 2011.
DOI: <https://doi.org/10.5392/KCA.2011.11.9.335>
- [18] S.W. Yang, “A study on local support agency in job service of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36, No. 3, pp.47-68, 2022.
DOI: <https://doi.org/10.18398/kilgas.2022.36.3.47>
- [19]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Statistics on 2020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1. Available from: https://www.kordi.or.kr/content.do?bid=248&mode=view&page=&cid=435326&sf_category=N107_2&cmsId=174 (accessed Mar. 17, 2023)
- [20] K. K. Park, Y. D. Kim, “An exploratory study on inefficiency of social program: focusing on delivery system of the job provision for the aged”,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29, No.9, pp.189-215, 2015.
DOI: <https://doi.org/10.22783/krila.2015.29.3.189>
- [21] S. W. Yang, “A study on local support agency in job service of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36, No.3, pp.47-68, 2022.
DOI: <http://doi.org/10.18398/kilgas.2022.36.3.47>

염 주 희(Joohee Yum)

[정회원]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학사)
- 2003년 5월 : 미국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12월 : 미국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2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노년학, 웰에이징,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정책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치매, 노인, 삶의 질, 웰에이징

김 광 환(Kwang-Hwan Kim)

[중신회원]



- 2001년 1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웰에이징

장 경 희(Kyung-Hee Chang)

[정회원]



- 2017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교육융합학과 석사
- 2021년 8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박사
- 2021년 10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죽음교육, 웰다잉, 삶의 질, 문학예술치료, 웰에이징